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강관실
세계철출판사 대표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광주 도청 쪽 충장로 초입에 ‘오두막’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었다. 오두막처럼 작긴 했으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제법 고급스러운 식당이었다.

일본의 건축가 나가무라 요시후미는 모든 집의 원형은 바로 오두막이라고 말한다. 필요 없는 공간을 하나씩 들어내다 보면 더 이상 들어낼 공간이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데 그때 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집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그는 산기슭 비탈진 곳에 살림집으로 14평짜리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현대 도시 건축물에 큰 영향을 미친 르 코르뷔지에라는 건축가 역시 자신만을 위한 별장은 4평짜리 오두막으로 지었다.

종교칼럼



조발기니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읍참마속(訖斬罵讟)은 울면서 마속의 목을 뱀을 뜻하는 사자성어이다. 사자성어의 유래는 이렇하다. 제갈량이 위나라를 공격할 무렵의 일이다. 제갈량의 공격을 받은 조에는 명장 사마의를 보내 방비토록 했다. 사마의의 명성과 능력을 익히 알고 있던 제갈량은 누구를 보내 그를 막을 것인지 고민한다. 이에 제갈량의 친구이자 참모인 마량의 아우 마속은 자신이 사마의의 군사를 방어하겠다고 자원한다. 마속 또한 뛰어난 장수였으나 사마의에 비해 부족하다고 여긴 제갈량은 주저했다. 그러자 마속은 심패하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거듭 자원한다. 결국 제갈량은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권유하며 전락을

기고



김재룡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은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데 흥미롭게도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나요?”가 아니라,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예금은 5000만원까지 정부가 보호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은행은 튼튼해서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 그제야 얼굴이 밝아지면서 앞으로는 돼지 저금통이 아니라 은행에 용돈을 저금할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금융교육의 보람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과연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은행이 건실한 것일까? 최근 5월의 한국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전문가 중 40%는 3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은 사람을 만든다

자연 속 삶을 추구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4.2평짜리 오두막에서 살았다 하지 않던가.

이 오두막들은 마을과 떨어져 있어 이웃과 더불어 혹은 식구들과 더불어 사는 집의 형태는 아니다. 다만 나에게 오두막은 전 국민의 반 이상의 주거 형태가 되어 버린 아파트와 대별되는 지점에서 떠올리게 되는, 그래서 늘 갈망하게 되는 주거 형태이다. 나 역시 숨 막히는 아파트의 숲에서 종종 탈출하고 싶어 오래 전 서울 근교의 산 중턱에 여섯 평짜리 농막을 지었다.

건축가 유현준은 자신의 책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곳곳에서 한국형 아파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고풍 아파트는 우리에게서 머리 위의 하늘을 빼앗아 갔다. 이웃과 소통하던 골목도 없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주변을 아파트 단지로 차단함으로써 모두가 누려야 할 자연을 독점해가고 있다. 천장 높이는 2.25미터로 모두 똑같이 답답하고 변화가 없다. 이불을 깔릴 수 있던 발코니, 하늘이 보이던 발코니, 자연과 호흡하는 창구였던 발코니는 알루미늄 새시로 막혀 유리창 벽으로 변해 버렸다.

어디 그뿐이라. 한밤중에 식구들끼리 맘 놓고 크게 웃을 수 없는 곳, 함께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없는 곳, 간짓대 세위 이불을 탕탕 털어 말리고 그 이불 사이로 아이들이 숨바꼭질할 수 없는 곳, 일상에서 상처를 입고 잠 못 이루는 밤 발코니에서 먼 위로해주는 마당 대신 뛰어내리고 싶은 누문동 집에 정착하기 전까지 나는 무려 아홉 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중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아버지의 발령 횡수에 더해, 해남이나 성천 같은 시골로 발령받으면 광주에 셋방을 얻느라 몇 번 더 이사했던 것 같다. 일본식 관사나 양옥이 있었는가 하면 한옥도 있었고 뭐라 특징을 말할 수 없는 집들도 있었다.

주거 형태는 갖가지였지만 비록 좀더라도 언제나 마당이 있었고, 나무와 꽃이 있었으며, 개와 고양이와 노루와 토끼와 닭과 염소가 있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달린 그야말로 오두막이었던 셋방에서부터 복도가 길고 큰 방이 여러 개 있었던

일본식 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에 살았는데, 마당 넓은 신안동 기와집에 살 때의 기억이 제일 다채롭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홉 개의 집과 더불어 때론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때론 무성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른다.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의 순례는 곧 기억의 순례이기도 하다. 결혼해서도 두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파트가 아닌 ‘땅 집’에서 살았다. 그 후 10년간 아파트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10년은 나에게 흑독한 시간들이었다. 신기하게도 두 아이들 역시 ‘땅 집’에서의 시절은 기억이 생생한데 아파트에서의 기억은 흐릿하다고 말한다. 아이들의 기억도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작은 오두막이라도 손바닥만한 마당만 있으면 100평짜리 아파트보다 공간의 확장성이 커진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가을이면 은행나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집, 해가 저무는 날 먼 데서도 내 눈에 가장 먼저 뜨이는 집, 생각하면 그리울고 바라보면 정다운 집”으로 시작하는 김용택의 시, ‘그 여자에 집’처럼 찬란한 추억이 함께하는 공간은 ‘땅 집’인 가 아파트인가.

예수님의 읍참마속

내린다.

그러나 마속은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전략을 세웠다가 대패하고 말았다. 결국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으며 마속의 목을 벨 수밖에 없었다. 엄격한 군율이 살아 있음을 전군에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한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마태오 12,49)하고 반문하기까지 한다. 덧붙여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마태오복음10장34절-36절)는 독한 말씀도 하셨다. 이유가 무엇일까? 제갈량의 읍참마속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 사건으로 지난 며칠간 떠들썩했다. 그리고 사건은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그런

데 청와대는 공약파기는 아니라며 항변했다. 이른바 기존 공항 리모델링이 사실상 신공항이라는 ‘미래창조과학적’인 해석이다. 지난 대선 때 박대통령은 부산 서동시장을 찾아 이명박 정부 때 백지화한 영남권 신공항 공약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을 백지화한 이유는 이미 수지가 맞지 않아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백지화한 신공항을 다시 살린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미미하게 끝다가 이제 와서 백지화가 아닌 미래창조과학적 신공항으로 돌아선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좀 더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쯤 됐으면 대통령의 말을 믿고 기대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공약을 만들 어낸 선거 캠프에 있던 측근을 경질해야 한다. 그것이 읍참마속이다.

지난 4년을 살면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박대통령은 사과를 모르거나 해보지 않은 것 같다. 사과가 싫다면 잘못을 하지 않으면 뵈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 답

답하다.

읍참마속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사자성어는 아니다. 국민의 당에도 더불어 민주당에도 새누리당에도 해당된다. 국민의 당 김수현 리베이트 사건이나 더불어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 새누리당 박인숙, 이근현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까지 읍참마속이 떠오르는 많은 뉴스가 이어진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뭉쳐진 나라이니 당연한 일일까?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이 박근혜 정부 들어 성시경(성균관대, 고시출신, 경성도 출신)으로 변한 것이나 호남 출대론이 나오니 우리나라 전체에 읍참마속은 보기 어려운 일일까?

며칠 전 서울대 병원 앞 백남기 페유를 위한 미사와 평화문의 신중 쿠데타 신유 신독재 타파를 위한 천주교 시국기도회에 다녀왔다.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이란 읍참마속이 이 땅에 자리 잡을 날을 기도했다. 예수님의 읍참마속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오 16, 24)이다.

건실한 지역은행 양성이 필요한 이유

중 2.6%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구태여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최근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조선·해운산업이 어려워지는 등 앞으로의 우리 금융환경이 여러모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은행의 기초체력, 즉 재무건전성 확보이다. 우리는 그간 수차례 외환·금융위기를 통해 은행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면 강한 외부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반대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은행은 조그마한 위기에라도 쉽게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면서 지역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은행들의 현재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은행의 재무건전성은 흔히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인 BIS자기자본비율(8% 이상)로 측정되는데, 2016년 3월 말 우리나라 은행 전체의 자기자본비율은 14.02%이며 이중 지방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이보다 소폭 낮은 13.89%인 수준이다.

이정도 수준이면 외형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민낯을 살펴보면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BIS비율은 다시 자본의 질(質)에 따

라 세분화되는데, 후순위채무 등 부채성격의 보완자본이 아닌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등 양질의 자본이 많을수록 은행자본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2016년 3월 말 지방은행의 보통주비율은 9.93%, 기본자본비율은 10.50%에 불과하다. 이것은 시중은행들의 수치가 11.95%, 12.50%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중은행은 자본의 약 83.3% 정도를 순수한 핵심적 자본(core-capital)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그 수준이 75.6%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시중은행에 비해 외형, 수익성 등이 열악한 지방은행에 시중은행과 동일한 잣대의 평가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방은행의 건전성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그 해답은 지방은행과 지역사회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지방은행은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역시 지방은행을 이용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튼튼한 지방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월에 광주지원장으로 부임한 후 지역의 K자동차를 보면서 이런 지역연대 경영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K자동차는 우리 지역에 공장을 두면서 지역 야구단지인 등의 여러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 지역민이 K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와 K자동차 모두에게 이익인 상황이다.

최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보도된 ‘지산지주’(地産地消)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지방은행이 지방대학의 연구실적에 근거한 벤처에 투자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를 통해 지방은행과 지역사회 상호간 긍정적인 선순환(positive-feedback)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금출원 동시에 지역 기업 및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지방은행이 지역사회에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지방은행은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주민은 튼튼한 지방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믿음에 보답하는,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지방은행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社說

국회 특권 포기,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관건

20대 국회 초입부터 ‘의원 특권 내려 놓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아예 금배지를 때자는 제안이 나왔는가 하면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입법까지 개혁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국회의원의 최대 방패막이라는 지탄을 받아 온 불체포 특권 포기과 국회 윤리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의결했다. 또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법제화, 세비 동결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채용’으로 특히 세비를 부른 서영교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다섯 가지 징계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 자격정지를 의미한다. 서영교도 당의 결정에 따르는 것은 물론 반성하는 의미로 올해 세비를 공약적인 부분에서 기약하겠다고 밝혔다.

예초 국회의원 특권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부여됐지만 본래 취지는 사라

지고 ‘권력 누리기’로 변질된 지 오래다. 여야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들은 ‘방탄 국회’로 파신하고, 친인척의 국회직 취업에 보좌진 월급마저 상납 받는 갑질을 일삼는다. 국민적 공분이 폭발 직전에 이른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나마 의원들이 부당한 특권을 버리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당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에 책임지고 자진 사퇴한 것 역시 우리 국민정서가 이제 더 이상 온당치 못한 정치권의 부조리를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게다.

하지만 관건은 실천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나 세비 동결은 19대 때 한 차례 추진했다가 새누리당 내 저항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으니 제 살 깎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거창한 구호에 앞서 하나하나씩 약속을 지켜 갈 때 정치인에 대한 시민도 비로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 속고 규제에 우는 평촌마을 사람들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자리한 광주시 북구 충효동 평촌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가 고사될 지정’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3중 규제’가 마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마을은 지난 2013년 전국에서 열 번째, 광주·전남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됐다. 예초 주민들은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당시 마을 부지의 국립공원 편입을 반대했다.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법의 규제에 다자언론원까지 더해지면 마을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마음을 열었다. 무등산을 국립공원화하는데 필요한 구역 확장 때 주민들이 동의하는 조건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평촌마을을 옥죄는 규제 풀리지 않은 탓에 관광객을 위한 민박·판매 시설, 주차장 등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도 활력을 잃었다. 이를 보다 못한 북구청과 광주시도 규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정부 정책과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를 믿고 생태관광자원을 가꾸는 등 마을 살리기 에 나선 주민들에게 규제 울기미를 덧씌워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신뢰를 저버린다면 결국 부패망이 돼 대책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조번석개(朝變夕改) 정책을 펴는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정부가 일버릇처럼 규제 대못을 뽐냈다고 공인한 만큼 평촌마을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제로 쇠락 위기에 놓인 평촌마을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無等鼓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져들었다. 찬성 52% 반대 48%로 ‘EU 탈퇴’를 선택한 영국인들도 뜻밖의 결과에 어안이 병방한 모습이다.

미국의 한 온라인 매체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대해 ‘크리스마스에 찬성표를 던진 칠면조(Turkey voting for Christmas)’라는 존철살인의 비유를 남겼다. 칠면조 요리는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칠면조의 모습, 부작용이 생길 이다. 특히 찬성한 줄 알면서도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인들과 똑 닮았다는 의미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경제는 위축되고 EU(유럽연합)를 이끄는 강대국 학의 연구실적에 근거한 벤처에 투자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를 통해 지방은행과 지역사회 상호간 긍정적인 선순환(positive-feedback)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금출원 동시에 지역 기업 및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지방은행이 지역사회에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지방은행은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주민은 튼튼한 지방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믿음에 보답하는,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지방은행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된 ‘죽음의 분노’가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로이트는 삶의 분노를 에로스(Eros), 죽음의 분노를 타나토스(Thanatos)라고 불렀는데, 특히 타나토스는 사람들이 자신을 파괴하고 처벌하는 ‘이해 못 할’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통과는 영국 주류 정치 세력에 반발하는 반 기독교, 반 엘리트 정서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성적인 각종 경고보다는

주류 계층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투표 결과를 좌우했다는 것이다. 특히 찬성한 줄 알면서도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인들과 똑 닮았다는 의미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칠면조의 모습, 부작용이 생길 이다. 특히 찬성한 줄 알면서도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인들과 똑 닮았다는 의미다.

결국, 소외와 박탈감 그리고 이로 인한 좌절이 타나토스를 발동시켜 불합리한 선택을 이끌어 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좌절한 개인과 집단은 언제든 크리스마스에 한 표를 던지는 칠면조가 될 수 있다는 예언체, ‘우리 사회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은 일부 주류 계층의 ‘희망 사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타나토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